

瘖瘖의 原因에 對한 文獻的 考察

韓 大 拮

I. 緒 論

言語는 言과 語로 區別하여, 自己가 말하는 것을 言이라 稱하고 他人의 言에 答하는 것을 語라 稱한다.²³⁾

咽喉는 水穀의 道이고 喉龍은 氣가 上下로 通하는 곳이며, 會厭은 聲音의 戶이고 口脣은 聲音의 肩이며 舌은 聲音의 機이고 懸雍垂²⁾는 聲音의 關이며 舌頰³⁾은 分氣가 泄하는 곳이고, 橫骨⁴⁾은 神氣所使로서 發舌을 主한다.¹⁾

9.11.23.29)

邪氣가 陰分에 入하여 博하면 瘖이 되는데 舌瘖과 喉瘖의 二證이 있다.

舌瘖은 中風患者가 舌不轉運하는 것을 例로 들 수 있고, 단지 舌本만 轉運하지 못하여 言語를 成說하지 못하는 것이며 音聲은 發하는 것이다. 喉음은 勞嗽等으로 失音하는 것을 例로 들 수 있고 다시 喉中만 聲嘶되며 舌本은 轉運하고 言語를 成說하는 것이다.^{11,23)}

이를 誘發시키는 窒患에 對하여는 韓醫學 最古의 文獻인 <黃帝內經>(B.C 2~3C)에서 처음으로 言及된 後로 諸家의 文獻에 여러가지로 나타나 있어 文獻的인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調查資料 및 方法

1. 調查資料

<黃帝內經>¹⁾으로부터 그 以後 清代까지의 古典文獻과 清代以後부터 最近에까지 刊行된

現代文獻을 對象으로 하였다.

2. 方法

諸家說의 瘖瘖를 誘發시키는 疾患을 外因 內因 不內外因으로 分類하고 時代的이고 文獻的인 考察을 中心으로 整理해 보았다.

- 註 1) 咽과 喉의 中間 氣管 上竅之蓋也, 氣質 似皮似膜, 發聲則開, 嚥食則閉
 2) 人張口時 喉上之小舌
 3) 上악內二孔, 司口內津涎之分泌者, 即後鼻道
 4) 附於舌根的小骨

Ⅲ. 調查內容

1. 瘧疾의 外因에 對한 分類

(1) 金元時代以前의 外因

書名	著者	內容
黃帝內經靈樞		風寒
巢氏諸病源候總論	巢元方	醉臥當風 風寒 心脾二臟受風邪
備急千金要方	孫思邈	風寒 心脾二臟受風邪
外臺備要	王壽	風寒 醉臥當風 心脾二臟受風邪
太平聖惠方	王懷隱	風寒 醉臥當風 風冷
婦人良方	陳自明	風寒 醉臥當風 心脾二臟受風邪

(2) 金元時代와 以後의 外因

書名	著者	內容
類經	張景岳	寒
張氏景岳全書	張景岳	寒
古今醫統必方大全	徐春甫	火 風寒 伏暑
證治準繩	王肯堂	寒 風寒 風熱
普濟方	周定玉 朱令	風邪熱毒

(3) 清代와 朝鮮時代에서의 外因

書名	著者	內容
臨證指南醫案	葉天士	外冷內熱 風熱 風寒
張氏醫通	張璐	寒 風熱
血證論	唐容川	風火

醫門寶鑑	周 命 新	風寒 火
醫宗金鑑	太 醫 院 御 書	熱毒
醫學心悟	程 國 彭	風寒
增補百病辨證論	陳 士 鐸	火
東醫寶鑑	許 浚	寒 醉臥當風 風冷
醫方類聚	世 宗 命	風
鄉藥集成方	李 泰 浩	風寒

(4) 現代에서의 外因

書 名	著 者	內 容
金元四大家學	李 聰 甫	熱 風寒
術思想研究	劉 炳 凡	
簡明傷寒論	難 知 文 秀 光	中暑 火傷
辨證方藥正傳	李 常 和	風寒
東醫四象大典	朴 奭 彦	風寒
東醫方劑學	尹 吉 榮	風寒
中醫內科學	山 東 中 醫 學 院	風寒 風熱

2. 痞瘕의 內因에 對한 分類

(1) 金元時代 以前의 內因

書 名	著 者	內 容
黃帝內經		胞之絡脈絕 腎虛 喉痺卒瘕 舌券 正邪所亂搏陰 厥逆之灸
巢氏諸病源候總論	巢 元 方	驚怖

聖濟總錄	政和奉刺	腎虛
婦人良方	陳自明	心虛

(2) 金元時代와 以後의 內因

書名	著者	內容
儒門事親	張子和	浮生絡脈絕
古今醫統	徐春甫	腎虛 胞之絕脈絕 內熱痰鬱
秘方大全		
證治準繩	王肯堂	痰涎閉塞 亡血 胞之絕脈絕 心虛 敗血
張氏景岳	張景岳	腎虛 喉痺 胞之絡脈絕
全書		肝邪暴逆氣閉 痰氣滯逆 大驚大恐 憂思過度

(3) 清代와 朝鮮時代에서의 內因

書名	著者	內容
臨證指南醫案	葉天士	腎虛 喉痺 失血 陰虛
張氏醫通	張璐	肺燥 肺絡受傷 發汗多 胃氣不能上通
濟陰綱目	武之望	胞之絡脈絕 敗血 心氣閉塞
濟衆新編	康命吉	舌強 神昏 口禁 舌縱 舌麻 敗血
血證論	唐容川	肺中實熱
醫門寶鑑	周命新	腎虛 痰迷心竅 血少氣壅 氣血虛損 元氣大傷 肺腎俱敗 痰氣滯逆 肝邪暴逆 驚恐 思慮 血積胸中作痛

醫學心悟	程國彭	胎氣壅閉 腎脈阻塞 心腎不交 氣血虛弱
增補百病辨證錄	陳士鐸	水抑肺氣
東醫寶鑑	許浚	舌強 神昏 口禁 舌縱 舌麻 敗血 痰塞 氣血不足 喉痺 頭瘡
醫方類聚	世宗命	痰 邪毒之氣伏於心竅
鄉藥集成方	李泰浩	敗血 心氣閉塞

(4) 現代에서의 內因

書名	著者	內容
簡明傷寒論	難知	心竅有毒 咽喉生瘡
	文秀光	弧惑證 痙病 瘀血
金元四大家學	李聰甫	腎虛 腎虛氣厥
術思想研究	劉炳凡	腎氣虛寒 憂思傷心 大驚 大恐 傷膽 飢食憂 疲勞 傷脾
東洋醫學原理	李正來	腎虛
辨證方藥正傳	李常和	色傷 大病後
東洋醫學叢書	趙憲永	氣脫
東醫四象大典	朴奭彥	色傷 大病後 中風 產後 舌強 神昏 口禁 舌縱 舌麻
東醫方劑學	尹吉榮	色傷 病後 中風 產後 老及虛人
中醫內科學	山東中醫學院	痰熱 肺氣不利 肺陰或 肺腎陰虛 聲道燥溢 發音不利

3. 瘧瘧의 不內外因에 對한 分類

書 名	著 者	內 容
古今醫統秘方大全	徐 春 甫	爭競大聲號叫 歌唱傷氣
臨證指南醫案	葉 天 士	怒叫號
醫門寶鑑	周 命 新	謳歌
東醫寶鑑	許 浚	謳歌
金元四大家學術思	李 聰 甫	號叫歌唱傷氣
想研究	劉 炳 凡	

IV. 考 察

1. 瘖瘳의 外因에 對한 考察

(1) 金元時代以前의 外因

〈黃帝內經靈樞憂論〉¹⁾에 ‘大卒然無音者，寒氣客於厭，則厭不能發 發不能下’라 하여 처음으로 瘖을 言及하여 外邪로 因한 發聲의 不調를 說明하였고 巢의 〈巢氏諸病源侯總論〉²⁾에서는 ‘醉臥當風’ ‘風寒客御會厭之間’ ‘心脾二臟受風邪’라 하여 음과 五臟과의 關係를 처음으로 言及하면서 〈備急千金要方〉³⁾ 〈外臺秘要〉⁴⁾ 〈太平聖惠方〉⁵⁾ 〈婦人良方〉⁷⁾ 등에 引用되고 있다. 孫의 〈備急千金要方〉³⁾에서는 〈巢氏諸病源侯總論〉²⁾의 內容을 引用한 外에 ‘風寒之氣，客於中，滯而不能發’이라 하면서 ‘음아失聲은 階風邪所爲’라 하였다.

(2) 金元時代와 以後의 外因

前代에 이어 ‘風寒’을 引用하면서 徐의 〈古今醫統秘方大全〉¹⁰⁾에서는 ‘火’ ‘伏暑’ 王의 〈證治準繩〉¹¹⁾에서는 風熱 周의 〈普濟方〉¹²⁾에서는 ‘風邪熱毒’을 言及하는 등 발전된 면을 보이고 있다.

(3) 清代와 朝鮮時代에서의 外因

(4) 現代의 外因

內容상으로 어떤 발전이 없고 전반적으로 前代의 引用에 그치고 있다.

2. 瘖瘳의 內因에 對한 考察

(1) 黃帝內經¹⁾에서의 內因 〈素問〉〈脈要精微論〉에 ‘心脈搏堅而長，當病舌卷不能言’ 〈宣明五氣論〉에 ‘五邪所亂하여 搏陰하면 瘖이 된다.’ 〈腹中論〉에 ‘厭逆을 灸하면 음이 된다’ 〈脈解論〉에 ‘內奪而厥則爲瘖俳，此腎虛世，少陰不至者厥世，〈氣交變大論〉에 心의 病證으로 음을 말하였고 〈靈樞〉〈經脈論〉에서는 ‘喉瘖卒瘖’이라 하여 外因에 比하여 많은 言及을

하고 있다.

(2) 金元時代以前의 內因

巢의 〈巢氏諸病源侯總論〉²⁾에서는 小兒不能語의 原因으로 ‘在胎之時，其母卒有驚怖’라 하였고 政和奉刺의 〈聖濟總錄〉⁶⁾에서는 ‘內奪而厥則爲瘖俳 比腎虛’라고 하여 〈素問脈解論篇〉¹⁾의 內容을 引用하였고 陳의 〈婦人良方〉⁷⁾에서는 產後不語의 原因을 ‘心氣虛而不能通於舌強不能言’이라 하고 妊娠不語에 ‘夫婦人身中，九月而瘖瘳不言者，是桴生絡脈不相接也，則不能言’이라 하여 〈素問奇病論篇〉¹⁾의 內容을 引用하였다.

(3) 金元時代와 以後의 內因

張의 〈儒門事親〉⁸⁾에서는 妊娠不語의 原因으로 ‘桴生絡脈不相接近’라 하여 徐의 〈古今醫統秘方大全〉¹⁰⁾과 같이 〈素問奇病論篇〉¹⁾의 內容을 引用하였고 徐의 〈古今醫統秘方大全〉¹⁰⁾에서는 ‘內奪而厥則음俳 此腎虛世’라 하여 〈黃帝內經〉¹⁾의 內容을 引用하면서 ‘內熱痰鬱’을 添加하였다. 王의 〈證治準繩〉¹¹⁾에서는 舌음, 喉音, 妊娠음, 產後음을 區分하면서 舌음의 原因으로 ‘痰涎閉塞’ ‘亡血’, 喉音의 原因으로 ‘厥氣走喉’ 妊娠음의 原因으로 ‘圃之絡脈絕’이라는 〈黃帝內經〉¹⁾의 內容을 引用하였고 產後음의 原因으로 ‘心氣虛而能通於舌則舌強不能言’이라는 〈婦人良方〉⁷⁾의 內容을 引用하면서 ‘停積敗血 閉於心竅’를 添加하고 있다. 張의 〈張氏景岳全書〉¹³⁾에서는 〈黃帝內經〉¹⁾의 內容을 引用한 外에 ‘肝邪暴逆氣閉，痰滯氣逆’ 과 ‘大驚大恐，憂思過渡’ 등 士情損傷에 依한 음도 言及하고 있다.

(4) 清代와 朝鮮時代에서의 內因

葉의 〈臨證指南醫案〉¹⁴⁾에서는 ‘內奪而厥則瘖俳 此腎葉世’라는 〈素問 脈解論篇〉¹⁾의 內容을 引用한 外에 ‘喉痺，失血，陰虛’ 등이라 하였고 張의 〈張氏醫通〉¹⁵⁾에서는 ‘肺絡受傷’ 外에 ‘傷寒誤用辛熱發散太過，而肺燥失音’ ‘

發汗多傷營 心神失養世'陽明府實, 胃氣不能上通而不語'라 하여 傷寒의 誤治로 일어나는 瘖을 말했고 武의 <濟陰綱目>¹⁶⁾에서는 子音의 原因으로 胞支絡脈絕野'라 하여 <素問 奇病論篇>¹⁾의 內容을 引用하였고 產後不語의 原因으로 '停積敗血 閉于心竅' '心氣閉塞'이라는 <濟衆新編>¹⁷⁾에서는 瘖不得語라고 하여 舌強不語 神昏不語 口禁不語 舌縱語澁 舌麻語澁等이라 하였고 '大驚入心 痰填塞心竅故瘖'이라 하였다. 唐의 <血證論>¹⁸⁾에서는 '肺中實熱'이라 하였고 周의 <醫門寶鑑>¹⁹⁾에서는 風中暴음에 '腎虛, 痰微心竅'라 하였고 '血脈에 血小氣壅하면 말을 못한다' 하였고 '氣血虛損及老人忽言不出'이 있다 하였고 子音의 原因으로 '腎虛, 脾虛, 氣血虛損, 元氣大傷肺腎俱敗'가 있다 하였고 痰證聲瘖으로 痰氣滯逆'이 있다 하였고 氣證聲瘖으로 '肝邪暴逆, 驚恐而肝膽受傷, 思慮傷心脾'가 있다 하였고 血證聲瘖으로 '血積胸中作痛'이 있다고 하였다. 程의 <醫學心悟>²¹⁾에서는 中風不語에 心, 脾, 腎 三經의 차이에 따른 證狀의 차이를 說明하였고 子瘖의 原因으로 '胎氣壅閉, 腎脈阻塞'이라 하였고 產後不語의 原因으로 元氣不足에서 비롯되는 '心腎不交 氣血虛弱 縱有微邪'라 하였다. 陳의 <增補百病辨登錄>²²⁾에서는 水抑肺氣'라 하였고 許의 <東醫寶鑑>²³⁾에서는 '厥氣走喉 邪入陰分'이라 했고 舌瘖 喉瘖을 區分하여 說明하면서 '痰塞亡血'이라는 <證治準繩>¹¹⁾이 內容을 引用하였고 瘖不得語라 하여 不語의 種類와 治法을 說明하면서 '大驚入心하면 敗血頑痰填塞心竅하여 瘖이 된다'고 하여 <濟衆新編>¹⁷⁾의 內容을 引用하였고 '中風人 飲食坐臥如常 但失音不語 俗乎爲아風, 痰塞, 虛損憔悴 氣血不足 喉痺生瘖, 瘖瘖後失瘖'과 같이 雜病에 따른 失瘖을 言及하고 있다. 世宗命의 <醫方類聚>²⁴⁾에서는 '痰이나 邪毒之氣가 伏於心竅'하는 原因外에 中風에 依

한 證狀으로 不語를 言及하고 있으며 李의 <鄉藥集成方>²⁵⁾에서는 產後不語의 原因으로 '停積子敗血閉於心竅'와 '心氣閉塞'이라는 <婦人良方>⁷⁾의 內容을 引用하였다.

(5) 現代에서의 內因

難의 <簡明傷寒論>²⁶⁾에서는 '心竅有毒, 咽喉生瘖, 孤惑證, 疾病, 瘀血'이라 하였고 李의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²⁷⁾에서는 '內奪而厥, 則爲음俳, 此腎虛也'라는 <黃帝內經>¹⁾의 內容을 引用한 外에 '腎虛氣厥, 腎氣虛寒'이라 했고, '色慾傷腎, 憂思傷心, 大驚大恐傷膽, 飢餓疲勞傷脾'라는 <景岳全書>¹³⁾의 內容을 引用하였다. 李의 <東洋醫藥原利>²⁸⁾에서는 '平素에 腎虛하여 體質이 衰弱한 사람이 風에 傷하므로 發生한다' 하였고 李의 <辨證方藥正傳>²⁹⁾에서는 中風不語에서 心, 脾, 腎 三經에 따른 症狀의 차이를 <醫學心悟>²¹⁾에서 引用하면서 '色傷, 大病後'라는 原因을 添加하였다. 趙의 <東洋醫學叢書五種>³⁰⁾에서는 產後음의 原因으로 '多量의 出血과 高度의 疲勞로 氣脫이 되어 생긴다.' 하였고 朴의 <東醫四象大典>³¹⁾에는 '色傷, 病後, 中風, 產後를 區分하였고 不語의 種類를 '舌強, 神昏, 口禁, 舌縱語澁, 舌麻語澁'等이라 하였다. 尹의 <東醫方劑學>³²⁾에서는 '色傷, 病後, 中風, 產後, 老及虛人失音'으로 區分하였으며 山東中醫學院의 <中醫內科學>³³⁾에서는 舌음과 喉음, 虛實을 區分하여 實證에는 '痰熱壅塞干肺, 肺氣不利' 虛證에는 '肺陰或肺腎陰虛, 聲道燥澁, 發音不利'라 하였다.

3. 음아의 不內外因에 對한 考察

徐의 <古今醫統秘方大全>¹⁰⁾에서 三因에 依해 分類하면서 '爭競大聲號叫, 歌唱傷氣'라고 처음으로 不內外因을 言及하였고 葉의 <臨證指南醫案>¹⁴⁾에서는 '嗔怒叫號'라 하였고 周의

〈醫門寶鑑〉¹⁹⁾과 許의 〈東醫寶鑑〉²³⁾에서는 ‘謳歌’라 하였으며 李의 〈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²⁷⁾에서는 ‘號叫歌唱悲哭’이라 하였다.

4. 金元時代以前에는 外因에서 주로 風과 風寒을 言及하였고 內因에서 妊娠瘕, 産後瘕, 腎虛가 言及되었으며 金元時代와 金元時代以後에는 外因에서 風, 風寒外에 火와 風熱이 言及되었고 內因에서 妊娠瘕, 腎虛外에 痰, 血, 七情損傷에 依한 瘕이 言及되었으며 清代와 朝鮮時代에는 外因에서 前代의 內容을 引用하는데 그친 반면에 內因에서 前代의 內容을 이으면서 舌強, 神昏, 口禁等 瘕의 種類와 脾와 肺의 損傷에 依한 瘕도 言及되고 있다. 現代에서의 外因은 前代의 內容을 引用하는데 그치고 있고 內因에서도 前代의 內容에서 別다른 進展없이 腎과 瘕의 關係에 對해서 一部 言及이 되고 있다.

V. 結 論

瘕瘕의 原因을 分類하고 調査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黃帝內經〉¹⁾에서는 外因보다 內因에 依한 瘕를 많이 言及하였다.

2. 〈巢氏諸病源喉總論〉²⁾에서는 外因을 많이 言及하면서 後世의 서적에 많이 引用되었다.

3. 〈千金要方〉³⁾ 〈外臺秘要〉⁴⁾ 〈太平聖惠方〉⁵⁾ 〈聖濟總錄〉⁶⁾ 〈婦人良方〉⁷⁾ 등을 주로 〈黃帝內經〉¹⁾과 〈巢氏諸病源喉總論〉²⁾의 引用에 그치고 있다.

4. 明代에는 不內外因과 七情損傷으로 因한 瘕를 言及하고 음의 種類의 分類 및 治方에 對한 言及等 學問적으로 많은 發展을 하고 있다.

5. 朝鮮時代와 清代에서는 많은 文獻이 나

타나면서 外因은 주로 前代의 引用에 그쳤으나 內因에서는 많은 進展이 있었다.

6. 現代에서는 西洋醫學에 依한 說明을 통해 腎과 음의 關係에 對해 言及하고 있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原因을 要約하여 記術하여 보면,

外因은 風, 風寒, 風熱, 內因은 妊娠, 産後의 心氣閉塞, 心과 腎의 虛弱, 七情損傷, 痰滯와 痰熱, 亡血 不內外因은 謳歌와 號叫가 되고 있다.

VI. 參考文獻

1. 楊維傑編：黃帝內經素問讀解，서울，成輔社，1980，p.139, 209, 311, 356, 357, 371
楊維傑編：黃帝內經靈樞譯解，서울，成輔社，1980，p.481, 482
2. 巢元方：巢氏諸病源喉總論，台中市，昭人出版社，卷 1 p.81, 卷 45 p. 761, 762, 卷 48 p.804, 805, 卷 50 p.844
3. 孫思邈：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1984，卷 8 p.168, 169
4. 王 燾：外臺秘要，교육주보사출판부，1975，p.374, 375
5. 王懷隱：太平聖惠方
6. 政和奉刺：聖濟總錄，서울，翰成社，1977，卷 3 p.341
7. 陳自明：婦人良方，金泳出版社，1975，卷 3 p.27, 卷 15 p.20, 卷 18 p.10, 11
8. 張子和：儒門事親，台北，旋風出版社，中華 67，卷 5 p.13
9. 張景岳：類經，서울，大星文化社，1982，卷 21 p.497
10. 徐春甫：古今醫統秘方大全，서울，金剛出版社，1982 p.3283~3296
11. 王肯堂：證治準繩，臺北，新文豐出版有限公司，卷 5 p.1379~1392

12. 朱今等：普濟方，서울，翰成社，1981，卷 64 p.424
13. 張景岳：張氏景岳全書，서울，杏林書院，1975，卷 28 p.375, 377
14. 葉天士：臨證指南醫案，서울，翰成社，1982，p.146~148
15. 張 玘：張氏醫通，新竹市，金藏書局，中華 45，p.971
16. 武之望：濟陰綱目，台北，旋風出版社，中華 66，p.303, 444~446
17. 康命吉：濟衆新編，서울，杏林書院，1975，卷 2 p.79, 80
18. 唐容川：血證論，上海，上海人民出版社，1977，卷 6 p.126, 127
19. 周命新：醫門寶鑑，서울，杏林書院，1975，卷 1 p.6~9，p.221~223，卷 5 p.348
20. 太醫院御書：醫宗金鑑，서울，醫道韓國社，1967，卷 4 p.202, 203，卷 5 p.152, 166, 167
21. 程國彭：醫學心悟，香港，友聯出版社，1961，卷 1 p.55，卷 5，p.245, 258, 259
22. 陳士壽：增補百病辨證錄，서울，書苑堂，1981，p.477
23. 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1，p.118~123
24. 世宗命：醫方類聚，서울，金泳出版社，1987，2冊，卷 13 p.51，卷 14 p.71，卷 15 p.132, 140, 144, 145, 150~152，3冊 卷 35 p.627
25. 李泰浩：鄉藥集成方，서울，杏林出版社，1977，p.483, 509
26. 難知等：簡明傷寒論，서울，大星文化社，1982，p.222, 223
27. 李聰甫等：金元四大家學術思想研究，서울，成輔社，1985，p.39, 40
28. 李正來：東洋醫藥原理，서울，廣智院，1977，p.242
29. 李常和：辨證方藥正傳，大邱，東洋綜合通信教育院，1979，p.92, 93, 156, 200
30. 趙憲泳：東洋醫學叢書五種，서울，成輔社，1978，p.85~87
31. 朴奭彥：東醫四象大典，서울，醫道韓國社，1977，p.433~435
32. 尹吉榮：東醫方劑學，서울，高文社，1971，p.149
33. 山東中醫學院，中醫內科教研室：中醫內科學，山東人民出版社，1976，p.147~156

ABSTRACT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Cause of Aphasia

by, Han Dae Gil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 Kwang University
Directed by Han Sang Hwan

I studied some important medical literatures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 of Aphasia and found out some facts as follows :

1. Hwang Je Nae Kjong(黃帝內經) is more referred exogenous causes of disease of Aphasia than endogenous causes of disease.
2. Among many causes of Aphasia, exogenous causes of disease was considered to be most common in Soh Shi Je Byong Won Hu chong Rhon(巢氏諸病源候總論), which has had a wide influence down the ages.
3. Chon Keum Yo Bang(千金要方), Chi Tae Bhi Yo(外臺秘要), Tae Pyong Song Hye Bang(太平聖惠方), Song Je Chong Rok(聖濟總錄), Bu In Yang Bang(婦人良方) and so forth had been quoted from Hwang Je Nae Kyong and Soh Shi Je Byong Won Hu Chong Ron(巢氏諸病源候總論).
4. In the ming dynasty had been quoted non-exo-endogenous causes of disease and the Kinds of Aphasia and prescription.
5. In the Choeun dynasty and the Ching dynasty, exogenous causes of disease was confined to the quotation of the books referred to above as well, but endogenous causes of disease was developed.
6. Today is referred kidney and Aphasia.

The cause of Aphasia obtained was as follows.

The exogenous cause of disease is wind, wind and cold, wind and heat.

The endogenous cause of disease is pregnancy, heart block of postpartum, weakness of heart and kidney, impairment of seven modes of emotions, stagnation of phlegm and phlegm-fire, hemorrhage.

The non exo-endogenous causes of disease is sing ballads and call out.